

2층 돈사, 슬러리시스템돈사

설치한 개금 농장

한정된 공간의 활용, 인력난 절감과
분뇨처리 등 경영의 합리화에 최선

취재 : 배 용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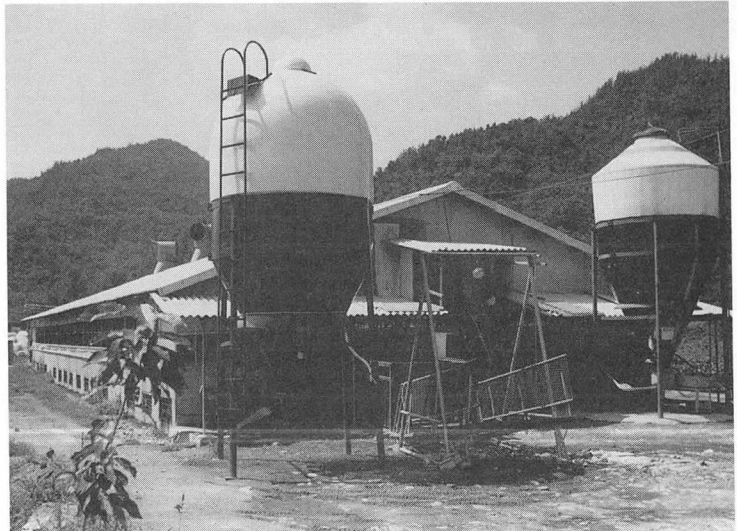
2명이 1,000두 규모 농장 관리

분뇨처리를 위해 슬러리시스템돈사를 설치한 후 도심지역 내에서의 법적규제에 묶여 절대농지 용적률의 20%밖에 지을수 없는 한정된 축사내에서 많은 두수의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2층 돈사를 설치한 개금농장.

현재 총 1000두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개금농장(이명환: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63, 전화: (0475) 32-2215)의 운영인원은 이명환사장과 직원 1명이 전부이다.

개금농장이 2층돈사를 짓게 된 동기는 금년 5월 사육두수를 늘리면서 축사를 증축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서였으며, 또한 앞으로 축사를 증축할 때 한정된 공간에서 돼지를 많이 사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축사를





△기존돈사에 2층돈방을 설치 천장이 낮다.

“
2층 돈방에는 생후
20일령부터 60일령까지
사육하고 60일령이 지나면
바로 밑의 돈방으로 내려
보내게 되어있어 돼지를
이동시키는데 드는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어있다.”
”

짓는데 드는 경비절약이 주 요 인 이었다.

2층 돈사는 기존의 육성돈사 약 1m 높이 위에 케이지시설을 설치하여 이곳에 생후 15~20일령이 지난 이유자돈을 기르고 있다. 따라서 자돈사와 육성돈사는 한동으로 되어 있으며 2층 돈방에는 생후 20일령부터 60일령까지 사육하고 60일령이 지나면 바로 밑의 돈방으로 내려 보내게 되어있어 돼지를 옮기는데 드는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어있다.

환기문제, 온도조절 문제 해결에 주력

2층 돈사의 설치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두수의 돼지를 사육하는 데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환기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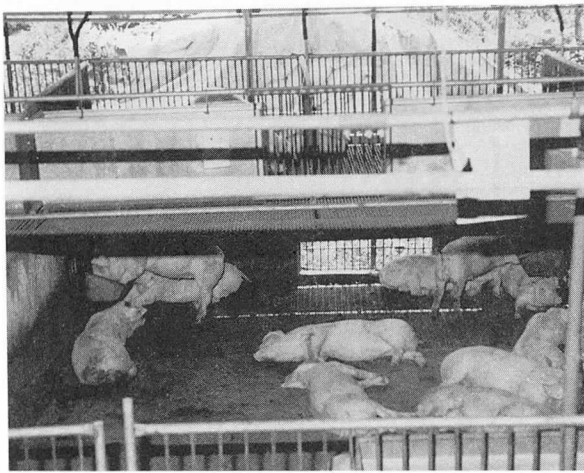
이 환기문제에 대해 이명환 사장은 『여름철 환기는 돈사 전체를 개방시킬 수 있어 아직 특별한 호흡기 질병이나 기타 다른 질병의 발생이 없었으며, 겨울철에는 2층돈방 바로 옆에 구멍이 뚫린 큰 PVC관을 돈사 전체에 길게 설치, 그 관의 양쪽 끝에 배기팬을 달아 환기를 시켜줄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밀폐될 수 밖에 없는 겨울철 환기는 자칫 양돈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기시설의 설치를 위해 이명환사장은 최근에도 많은 연구와 공부를 계속 중이다. 또한 밀집사육으로 온도조절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온도조절에 대해 『여름철에는 돈사 지붕 위에 물을 뿌려주어 돈사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었

고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설치 가동하여 적절한 온도를 맞춰 준다』고 말한다.

2층 돈방에 있을 때 성장률 더 좋아

이명환사장은 2층 돈사의 설치에 대해 『건축비의 절감과 돼지를 이동시키는데 드는 인력 절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20~60일령의 돼지가 돈사 바닥에서 길렀을 때 보다 2층 돈방에 있을 때가 성장률이 더 좋았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돈방이 철망으로 되어 있어 환기가 잘되고 또한 돈분이 바닥 밑으로 즉시 떨어져 돈방내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60일령부터 출하때 까지 2층 돈방 밑에 있는 육성돈들의 성적은 2층 돈사를



▲ 2층 돈방에는 20~60일령의 자돈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돼지가 육성돈이다.



▲이명환사장

설치하기 전과 같았다고 한다.

'91년 5월에 슬러리스시스템돈사를 설치한 개금 농장의 분뇨 처리는 500t 저장 능력의 분뇨 저장 탱크와 발효건조장 설치 예정 장소 약 200평의 땅을 깊이 3m정도 판 다음 비닐을 두 겹씩 깔아 그 위에 돈분뇨를 각각 저장시켜 돈사설치후 아직까지 농장밖으로 분뇨가 빠져나가지 않게 했으며, 9월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주)다나에서 시설하는 발효건조장이 완공되면 이들 분뇨와 함께 양돈장의 모든 분뇨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공사의 재원조달은 폐수처리자금 5,000만원을 융자 받게 되어 있고 또한 자부담 2,000만원을 투자, 총

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의 농장 옆 1,500평의 땅을 농지전용허가 받아 놓았고 또 1억7천5백만원의 선도양축자금을 받게 되어 있는 이명환 사장은 내년에 자부담 1억3천만원을 들여 350평의 돈사를 증축할 것이며, 이때 자돈사와 육성돈사는 한 돈사로써 2층 돈사로 된 슬러리스시스템돈사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역 양돈업의 발전에도 기여

현재 설계중인 이 돈사의 환기시설은 각 돈방마다 바닥에서 수직으로 PVC 관을 설치하여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기초

설계가 된 이 돈사에 대해 이사장은 『2층 돈사는 환기,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쉬워 많은 검토를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업계와 학계 등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옥천지부 전지부장인 정종배(양돈단지 추진위원장)씨와 함께 옥천지부 회원을 중심으로 옥천지역에 양돈단지 조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이명환 사장.

현재 2명의 인원으로 1,00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 전략도 높히 살수 있지만, 지역 양돈업의 발전을 위해 힘 쏟으며 돼지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돋보인다. ▶